

'이삭' 김하경 대표, 토스트 사업에 이어 버거 사업도 성공할까

이삭토스트는 토스트 가게의 대명사로 인식될 만큼 한국에서 인지도 높은 토스트 브랜드다. 또한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평균 수명이 짧은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오랜 기간 살아남은 대표적인 기업이다.

김하경 대표이사가 이끄는 이삭의 이삭토스트는 원래 1995년 개인 창업으로 시작한 작은 토스트 가게였다. 소규모 가게에서 지금의 이삭토스트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김 대표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원래 평범한 주부였던 김 대표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돈을 벌기 위해 학원에 나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많아 가사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이때 고민하다가 나온 아이템이 바로 토스트였다. 그는 학원 강사 시절 학생들에게 가끔 토스트를 만들어준 적이 있었



청화아파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2

데 그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을 떠올렸다. 그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토스트다'라고 생각했고 이후 청주에 3평짜리 가게를 열고 토스트를 판매하기 시작했

다. '이윤을 많이 남기기보다는 질 좋은 재료로 만드는 맛있는 토스트를 만들자'라는 자부심으로 매일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손님들에게 이 토스트가 맛있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김 대표 가게의 토스트는 청주에서 꼭 먹어야 할 명물로 자리 잡으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러다가 가게의 단골손님으로 왔던 한 여학생의 한마디가 김 대표의 마음에 꽂혔다. "달콤한 소스를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는 이 조언을 귀담아 듣고 새로운 소스를 개발 시작했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개발한 '특제소스' 덕분에 하루에만 토스트가 1500개씩 팔리며 소위 '대박'을 쳤다.

김 대표의 토스트 프랜차이즈 사업은 우연한 계기에서 시작했다. 그는 2003년 아파트 단지 내에 좌판을 펴고 엑세서리를

팔며 생계를 유지하는 부부를 보게 됐다. 신경쓰이는 이들을 보고만 넘어갈 수 없었다. 김 대표는 며칠간 고민 끝에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장사 비용을 줄 테니 내가 했던 토스트 장사를 해보지 않겠어요?"라고 부부는 이 제안을 수락했다. 김 대표의 토스트 제조 기술을 전수 받은 부부는 2003년 대전 한남대학교 근처에 가게를 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의 도움이 컸다.

부부는 고마운 마음에 김하경 대표에게 가게 이름을 직접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김 대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삭'의 이름을 따와 '이삭토스트'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렇게 '이삭토스트 가맹1호 점'이 탄생했다.

이삭토스트는 이후 가맹 요청이 쇄도, 폭발적으로 가맹점 수가 증가해 현재는 8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2014년에는 마카

오, 2016년에는 대만 등 중화권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해외에서도 성공한 브랜드로 거듭났다.

한편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수제 버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롯데월드몰에 글로벌 스타 셰프 고든 램지의 하이엔드 버거 레스토랑인 '고든 램지 버거'가 사전 개점했다. 7일 정식 오픈하는 이 매장은 예약을 해야 갈 수 있을 정도로 큰 호황을 맞고 있다.

이런 업계에 발맞춰 김하경 대표는 버거 사업에 진출했다. 이삭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에 '이삭버거' 1호점 오픈했으며 같은 달 경기 용인 기흥구에 2호점을 냈다. 올해부터 이삭버거는 본격적으로 가맹점을 늘려갈 예정이다. 김하경 대표가 토

스트 사업에 이어 버거 사업도 성공시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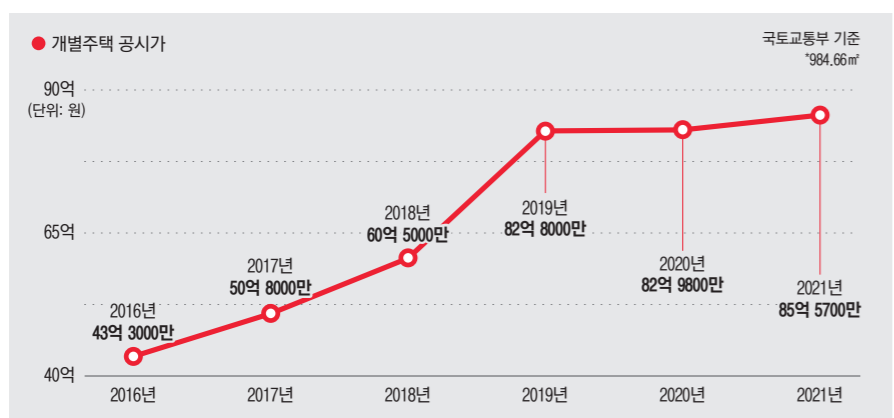
이동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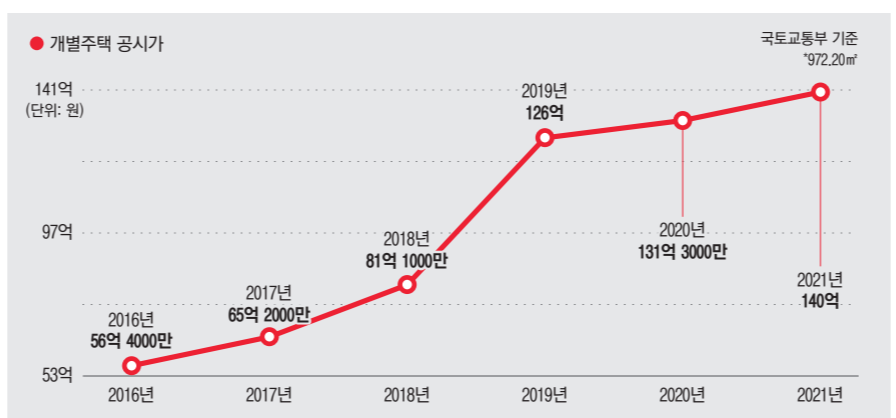
ISAAC TOAST

tvN '유 퀴즈' 캡처 김하경 이삭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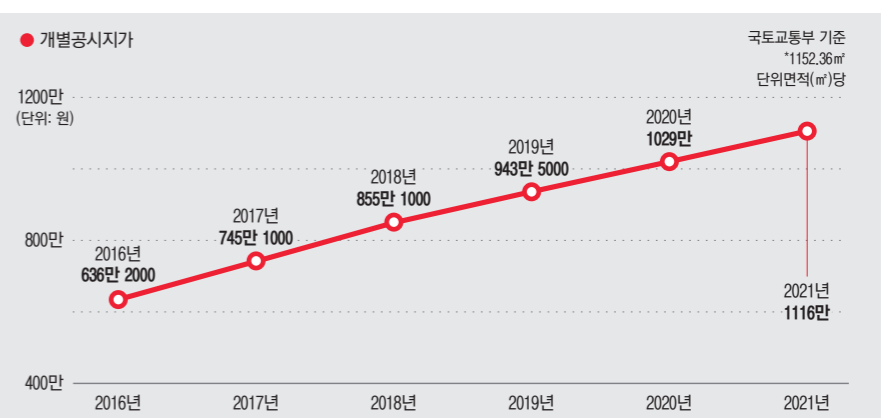
아이-하우스(단독주택)



단독주택



빌딩



허동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



허동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은 한일시멘트의 창업주인 고(故) 허재경 회장의 3남이자 허정섭 명예회장과 허영섭 녹십자 회장의 동생이다. 그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삼양식품공업에 들어가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삼양식품 미국 지사장, 한일산업 전무를 거쳐 1982년부터 1992년까지 한일건설 부사장과 대표이사 회장을 지내면서 도급 순위 40위권의 우량 건설업체로 성장시키며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 1999년 한일시멘트그룹 부회장을 맡은 그는 계열사 한일



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도 그룹의 중추인 한일시멘트의 대주주로서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허 명예회장은 경영 일선에 몸 담았을 당시 결재서류에서 숫자가 잘못 기재된 것을 꼭잡게처럼 집어낼 정도로 치밀하고 꼼꼼하기로 유명했다. 특히 사장 시절에는 사장실에 조직도와 함께 모든 임직원의 사진을 붙여놓고 직원들 이름까지 모두 외울 정도로 치밀한 업무 스타일로 평평이 났다.

김승호

한보령제약 회장



김승호 보령제약 회장은 국학대학 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중앙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충남대학교 약학

약협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보령제약의 비약적인 성과를 이끌어낸 김 회장은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훈장 중 첫 번째 등급 훈장인 '무궁화장'을 수여받았다. 보령제약은 국민들에게 친숙한 용각산과 겔포스 등의 스테디셀러 제품군을 보유한 제약회사다.



명예박사, 강원대학교 의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군을 제대한 뒤 1957년 자신의 출생지인 충청남도 보령의 이름을 딴 '보령약국'을 종로5가에 개업했다. 이후 1963년 보령약품을 설립해 제약 산업에 뛰어 들었으며 이를 발판삼아 보령제약 그룹을 일구었다. 그는 제약업계에서 보령제약의 위치가 확고해진 후 1991년 제

백지연

전 아나운서



백지연 전 아나운서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연세대 재학 시절부터 출중한 외모로 '브룩 윌즈'라는 별명을 얻었다. 1987년 MBC 15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1988년부터 MBC 9시 뉴스 진행을 맡으며 앵커로 활약했다. 이후 1999년 회사에 돌연 사표를 내고 프리랜서 선언을 했다. 독립선언 뒤 2004년 YTN '백지연의 뉴스Q'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뉴스를 진행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tvN '백지연의 피플 INSIDE' 인터뷰 프로그램을 4년간 이어가기도 했다. 2015년에는 SBS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대한민국 상류층의 속물 의식을 비판 이드라마에서 그는 세계 2위인 대승 그룹 장희장의 아내 지영라 역으로 같은 우아하지만 속은 잔뜩 꼬인 재벌 사모님 역할을 맡아 꼼꼼하게 소화해 호평 받았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회현동에 주민편의 복합 공공청사 건립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 중구가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중심 상업지역인 중구는 비싼 지가와 높은 임대료로 주민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곳으로 평가된다.

이에 구는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시설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해 단일기능이 아닌 복합기능을 제공하는 시설로 재공급하는 생활SOC 복합화에서 해결방안을 찾았다.

구는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해 회현동 공공청사를 신축해 주민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공시설을 수요자 중심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회현동1가 203-4번지 일대 기부채납 부지에 짓는 공공청사에는 연면적 2만4000㎡, 지하 3층·지상 23층 규모로 건립되며 더불어 공영주차장과 행복주택 296가구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사업 현장 위치도.

현재 회현동 주민센터와 회현 어린이집 등은 급경사지에 위치해 대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인근 주민과 영유아들에게 쾌적한 청사와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공공시설 이용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이번 복합화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사업시행자인 SH 관계자는 "공공청사 상부에는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을 조성하고 국·시·비 지원을 통해 주민편의시설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며 "회현동 공공

청사 건립으로 도심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중구와 SH는 향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투자심사 및 설계공모 등 조속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후 2024년 상반기 착공해 2026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서양호 구정장은 "이번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을 통해 명동 및 회현동 일대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청사 신축부지로 캠프페이지 확정... 2027년 완공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는 도청사 신축부지로 춘천시가 제안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신축부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도청사는 65년이 경과돼 크게 노후화됨에 따라 구조안전성 등의 문제로 그동안 신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도는 노후화된 도청사의 안전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행정절차 이행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조기 준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엔 캠프페이지 부지에 도청사를 신축하는 이유는 △현 청사 부지에 비해 약 700여 명의 매몰비용 절감 △2027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 △주변미관 준주지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서양호 구정장은 "이번 회현동 복합청사 건립을 통해 명동 및 회현동 일대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왼쪽), 이재수 춘천시장(오른쪽)이 청사 신축에 대한 기자회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를 확정하게 됐다.

도청사 신축 건립은 공모, 기본계획 등을 거쳐 청사 준공까지 약 5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도청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문화재역으로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지향하는 상징성 △레고랜드·캠프페이지·원도심을 연결하는 문화·관광·행정 벨트 구축 △춘천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 캠프페이지 이전에 65.5%가 찬성 등으로 부

월 착공, 2027년 6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도와 춘천시는 현 도청사와 캠프페이지 간 부지교환 방안을 상호 교환차액 최소화 방안으로 결정했다. 캠프페이지 부지 내 도청사 신축을 위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로 변경 후 각 부지별 감정평가를 해 차액이 발생하면 시와 교환 등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 청사 부지는 시민여론과 춘천시의 계획을 반영해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춘천시에서는 봉의산과 연계하여 현 도청 건물 리모델링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추진할 때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청의 신축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으로 도청 소재지 이전이 아님을 도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도의 새청사가 강원도의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번영의 중심이 되어 통일 시대라는 미래 가치를 담은 새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